

인간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덕과 정이 차넘치는 공화국에서는 생사기로서 헤매이던 사람들이 기적과도 같이 건강을 되찾고 절을 수 없던 사람들이 대지를 활보하는가 하면 알 못보던 사람들이 광명을 되찾는 것과 같은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것을 보며 누구나 속구치는 격정으로 눈굽을 적시었다. 보건일군도 아닌 교원이 어떻게 되어 소리를 치료해줄 결심을 하였는가도 몰랐을 때 더 나은 교원이란 말은 구경잡이와 함께 웃는 소녀의 노래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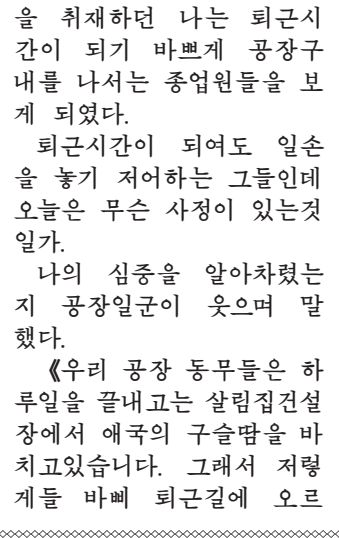


조선의 꽃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꽃다발을 안겨주는 사람에게 그 노동자가 한 말은 깊은 여운을 주고 있다. 《약물보다 고마운 사람들의 친혈육의 정이 먼저 나의 몸을 흘러들었습니다. 나의 생명지표는 그들이 바친 사랑과 헌신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들 나라에 체류하고 있던 나날 나는 남을 위해 자기를 서슴없이 바치고 누구나 친형제라 되어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때때로 느끼었다. 오늘날 공화국에서 무수히 꽃피어나는 인간사랑의 전설들은 세상사람들에게 사랑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사회, 남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남의 불행은 자기의 불행으로 여기는 공화국과 같은 인간사랑의 대화원에서만 참다운 인간의 삶과 행복이 꽃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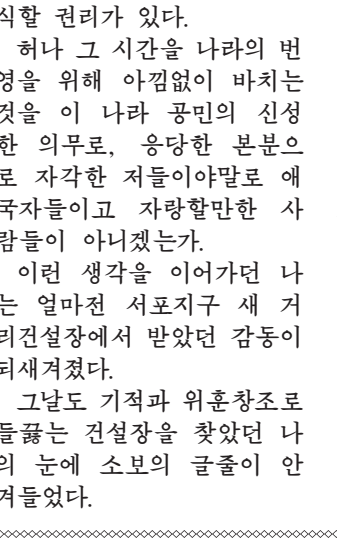
며칠전 우리는 올해를 더 알찬 성과로써 맺었기 마무리할 때 대한 당중앙의 호소를 받들고 총분기나선 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화성지구 2단계 1단계 대 살림집건설장을 찾았다.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이 즐비하게 일떠선 건설장의 어디서나 새 기계, 새 기록창조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었다.



조선의 꽃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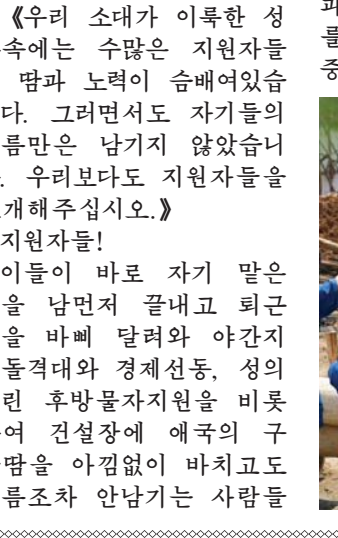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조선의 꽃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조선의 꽃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조선의 꽃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조선의 꽃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우리가 정한 시간표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바쁜 퇴근길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는 양봉애로가 >>>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어느날 나는 병원문앞에 쓰러져있는 한 로인을 보게 되었다. 보기에 몸이 위급해보였다. 달려가 환자를 부축하려는데 그 나라 의사가 나에게 주는 (충고)는 천만뜻밖이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라. 못본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양봉애로가 리선로인